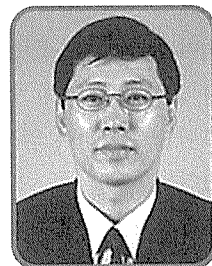


사 례 보 고 2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자료조직 일원화 사례



한춘수*

1. 들어가면서

상허기념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동양서는 NDC(일본십진분류법), 서양서는 DDC(듀이십진분류법)를 사용하면서 사서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이용자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5년 1월부터 이원화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NDC로 분류된 동양서 70여만책을 DDC로 재분류해서 레이블을 생산하고 부착하여 정배열하는 일련의 작업과정들이 그리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상허기념도서관 자료조직 일원화 추진과정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2. DDC 분류정보 변환 추진과정

상허기념도서관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화된 분류체계 통합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서관에서는 수시로 각 팀장 및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DDC 분류작업 및 타대학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도서관 전 직원이 DDC 분류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2주일 동안 이수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DDC 22판을 적용하여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NDC로 분류된 도서를 DDC 분류정보 변환을 위한 Source Data로 활용하기 위해 서지번호(Record Number), NDC 데이터, DDC 데이터(일부 데이터에 병기되어 있음), KDC 데이터(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서명정보, 기타 확인을 위한 부가정보(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등)를 엑셀파일로 반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정보처리팀 과장, cds00@konkuk.ac.kr

영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 보완작업을 하였다. 첫째, NDC와 DDC 분류정보가 함께 있는 서지데이터는 DDC 정보를 데이터(Main Data)로 재생성하였으며, 둘째, NDC 정보만 있고 DDC 정보가 없는 서지 데이터는 KERIS(교육학술정보연구원)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정보를 조사하여 DDC 분류정보를 입력하였다. 셋째, KERIS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데이터는 신규 분류하였고, 이렇게 수정 보완이 완료된 데이터(Source Data)를 서지정보로 반입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시 서버에서 데이터(Source Data)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류기호 검증작업이 완료되어 메인서버로 데이터(Source Data)를 변환해서 통합된 DDC 분류를 2005년 5월 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상에서 자료검색시 기존소장 정보위치(NDC 분류기호)를 보이게 하도록 하였다.

3. 팀구성


상허기념도서관에서는 레이블 부착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① 사고도서처리팀 ② 도서바코드 리딩팀 ③ 레이블(청구기호) 생성팀 ④ 도서바코드 부착팀 ⑤ 레이블(청구기호) 및 키피 부착팀 ⑥ 반납도서 처리팀 ⑦ 도서정배열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인 (주)미르테크에서는 ① 소장정보 DB에서 변환작업을 위한 데이터(Source Data) 추출 프로그램 개발업무 ② DDC 분류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해당 Tag에 치환하는 프로그램 개발업무 ③ 새로 반입된 서지데이터 색인 생성업무 ④ 책등 레이블(Spine Label)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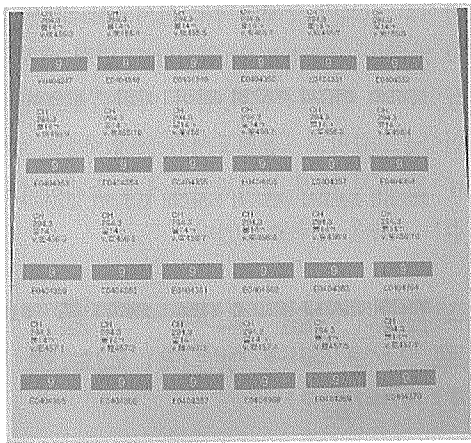
4. 개가서고 책등 레이블 부착

개가서고 책등 레이블을 부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도서 바코드(등록번호)가 없는 도서(참고도서, 학위논문, 국내간행물, 비도서자료 등)는 A4 적색 용지로 일괄 바코드(등록번호)를 출력하여 해당 도서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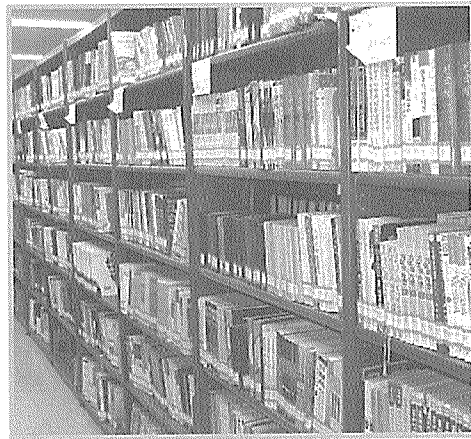
과거 NDC 분류표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기호를 갱신하기 위하여 바코드 리더기로 서가에 배열된 도서의 바코드(등록번호)를 읽은 텍스트 파일을 PC로 전송한 후 목록시스템의 레이블 생성기능으로 반입하여 리딩한 순서대로 레이블을 출력해서 연인원(전직원, 조교, 공익, 아르바이트, 임시직, 도서관차치위원) 4,800여명이 동원하여 1일 1인당 700-900여책의 도서 레이블(청구기호) 및 키피를 부착하였다. 재배열은 동양서 자료유형별 DDC 통계표를 참조하여 서가수를 조정하고 서가수를 열단위로 계산하여 임시표를 부착해서 도서이동 및 재배열을 완료하였다.

5. 나오면서

이제 도서관 자료조직 일원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도서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무척 기쁘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는 동일주제의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또한 사서는 KERIS 공동목록의 DDC 분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간도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동안 제일 큰 이용자 불만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서관 자료조직 일원화 작업을 계기로 도서관이 변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책등 레이블〉



〈레이블 부착 후 서가 모습〉